



# 마왕(장송의 프리렌)

최근 수정 시각: 2024-09-23 22:59:24

분류:장송의 프리렌/마족

## 목차

- 1. 개요
- 2. 특징
- 3. 작중 행적
- 4. 능력
- 5. 기타

## 1. 개요

장송의 프리렌의 등장인물. 영어로는 'Demon King'이라고 번역되었다.

## 2. 특징

약 천년 이상 군림한 마족들의 왕. 용사 힘멜, 성직자 하이터, 드워프 전사 아이젠, 엘프 마법사 프리렌 파티에게 패배해 토벌 당했다.

모든 마족들이 마왕의 강대한 힘에 반 두려움과 반 경외심으로 마왕님이라 존칭으로 부를 만큼 강대한 위상을 지녔으나, 마족들은 천성적으로 개인주의적인 탓에 술라흐트 같은 일부 예외를 빼면 대부분 진심으로 충성하지 않았다. 그 탓에 압도적인 공포로 다스려야 했으나 마흐트, 토트 같은 대마족들은 기분이 안 내키면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도 많았다.

황금향 편에서 프리렌의 발언으로 마흐트와 마찬가지로 사실 인류와 공존을 시도했다는 게 밝혀진다.<sup>[1]</sup> 그러나 그 공존을 위한 수단으로 인류의 세력권을 1/3로 줄이는 대학살을 벌였고, 그럼에도 끝내 마왕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다.<sup>[2]</sup> 그 모습을 보고 프리렌은 마족은 결코 인간과 공존할 수 없는 인류의 적이라는 것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.

## 3. 작중 행적

본작이 마왕 토벌을 이룩한 용사 힘멜 일행의 귀환부터 시작되므로 마왕 본인은 시작부터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, 과거 회상이나 언급을 통해서만 등장한다.

본편에서 1천 년 전에 프리렌의 고향 마을의 엘프들을 비롯한 엘프들을 절멸하도록 명령하였다.<sup>[3]</sup> 힘멜 일행의 여행보다 몇 년 전에 **술라흐트**를 시켜 **남부의 용사** 토벌 임무를 내렸다.

힘멜 일행의 여행 7년 차 시점에 여신의 석비를 통해 **프리렌**이 80년 후의 미래에서 역행해 오자, 시공간 간섭을 감지해 **그라우잠**, **솔리테르**, **리발레**, 토트 4명의 대마족들을 시켜 미래의 정보 탈취 및 미래에서 온 프리렌의 **암살** 임무를 내렸다. 프리렌 암살에는 실패했지만, 그라우잠이 프리렌의 기억을 읽은 듯한 묘사가 있어서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.

## 4. 능력

강력한 칠봉헌을 비롯해서 내로라하는 강력한 마족 전체를 아래에 두었고 사실상 작중 최강자로 여겨진다.<sup>[4]</sup> **프리렌** 본인도 **힘멜**, **하이터**, **아이젠** 중 한 명이라도 빠졌다면 마왕을 쓰러트릴 수 없었을 것이라 단언했다.<sup>[5]</sup> 마왕이 죽은 지 8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작중에서 마왕에 대해 언급할 때 일종의 두려움이나 경외감을 담아서 말한다.

태생부터 마법을 쓰는 마족의 왕답게 마법에 관해서도 최고 수준의 실력자였다. 대마족들조차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하는 **프리렌**의 마력 억제를 최초로 한 눈에 꿰뚫어 보았으며,<sup>[6]</sup> 대륙 최북단 엔데에 있으면서 저 멀리 북부고원에 위치한 여신의 석비에서 시공간 간섭이 일어나 프리렌이 시간을 역행한 것을 눈치챘다.




**수렴 진화**의 개념도 아는 것을 보아<sup>[7]</sup> 힘만 강한 게 아니라 박학다식하다. 마왕군의 훈련에도 공을 들였는지 마왕군은 마왕군에 속하지 않은 야생 마족에 비해 싸움에 능숙하다고 한다.<sup>[8]</sup>

## 5. 기타



원작 3권 22화에서 어떤 마족이<sup>[9]</sup> 옥좌에 앉은 채로 힘멜 일행과 대치하고 있는 회상 장면이 있는데, 이 인물이 마왕이라는 추측이 나오고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. 애니판에서는 해당 것이 마왕성을 마주하는 힘멜 일행으로 바뀌었는데 설정이 제대로 짜여있기 전이라 후에 마왕이 등장할시 외형을 바꾸기 위해, 혹은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잘린 것으로 보인다.

- [1] 이것이 힘멜이 용사의 검을 뽑지 못한 이유라는 의견도 있다. 용사의 검은 세계가 멸망할 위기에 용사에게 힘을 빌려준다고 했으나, 마왕은 세계 멸망을 원한 것이 아니었으니까.
- [2] 마흐트도 인류와 공존을 도모 했으나, 인류를 이해하기 벌인 행위가 바이제 도시 전체의 황금화다. 우리가 사고로 이해할 수 없으나, 마왕의 대학살 역시 본인 나름 인류와 공존을하기 위한 행위일 수 있다.
- [3] 이런 명령을 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다. 상식 선에서 추리해보자면 마력량을 늘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, 자연사하지 않는 마족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마력량을 단련할 수 있는 엘프는 마족에 위협적인 종족이라고 판단한 듯하다. 그런 명령 덕분인지 작중 등장한 엘프는 프리렌, [크라프트](#), [제리에](#), (프리렌의 회상에 등장한) 밀리아르데 단 4명뿐이지만, 이 중에서 프리렌과 제리에가 세계관 최강자나 다름 없으며, 작중 묘사에 따르면 크라프트가 선대 용사와 비슷한 존재임을 고려했을 때, 마왕의 명령은 타당한 통찰을 바탕으로 두고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.
- [4] 최강의 마법사인 [제리에](#)와의 우열이 그나마 팬덤에서 논란거리지만, [플람메](#)는 제리에가 마왕을 쓰러트릴 수 없다고 단정했다. 다만 이건 힘의 우열이나 상성 같은 것이 아니라, '싸우는 것 밖에 모르는 제리에'는 마왕이 쓰러진 평화로운 세계의 자신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'라는 일종의 [예언](#)이다.
- [5] 따라서 [힘멜](#) 및 프리렌 등의 용사 파티, 칠봉헌 같은 대마족이 강력한 힘을 보여줄 때마다 평가가 높아진다.
- [6] 이후 [레르넨](#)만이 똑같이 프리렌의 마력 억제를 꿰뚫어보았고, 그 레르넨도 못 꿰뚫어 본 제리에의 억제를 페른이 꿰뚫어 보며 더한 통찰력을 보였다. 다만 마왕이 제리에의 억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지는 불명이니 마왕과 페른의 통찰력 우열은 알 수 없다.
- [7] [솔리테르](#)가 마흐트에게 언급한 [수렴 진화](#)의 개념이 마왕에게서 배운 것이었다.
- [8] 프리렌은 루펜에서 나타난 마족 둘이 싸움에 능숙한 것을 보고 마치 마왕군 같다고 평가했다.
- [9] 워낙 작은 컷 안에 복잡한 외형으로 그려져 알아보기 어렵지만, 자세히 보면 투구를 쓴 머리 양쪽에 거대한 뿔이 있다.

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[마족\(장송의 프리렌\)](#) 문서의  r415 판,  3.1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. [이전 역사 보러 가기](#)

#### 파워링크

#### 광고등록

##### 서울밝은안과의원

[www.eyee114.com](http://www.eyee114.co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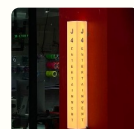
인천 연수구 옥련동, 옥련시장위치, 백내장, 노안은 안전한 센추리온



##### 고연색led조명 윤라이팅

[www.yunlighti...](http://www.yunlighti...) 

LED스포츠조명, 식물조명  
매입등 방수등 형광등 공장  
등 가로등, 특허상품제조...



##### 조명, 제이포

[www.j4cine.co.kr](http://www.j4cine.co.kr)

영화/드라마/CF 촬영장비 전문, 조명 50% 할인이벤트 진행 중



이 저작물은 [CC BY-NC-SA 2.0 KR](#)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단,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)

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,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.